

[요약본]

북한 청년세대의 삶과 의식세계

김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차례

I. 서론

II. 북한 청년동맹의 성격과 발전 과정

III.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활동과 특징

IV. 김정은 시대의 청년동맹

V. 결론

I. 서론

김정은 시대가 출범하던 시기에 중동에서는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였으며 주력세력은 청년들이었다. 이를 목격한 북한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된다”¹⁾는 인식하에 청년들에 대한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특징은 조직생활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 그리고 정규 학교 교육의 모든 과정은 국가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위 ‘주체형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하나 이상의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부름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동원사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정규적인 조직생활은 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조선소년단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을 거쳐 조선노동당 또는 직맹(조선직업총동맹),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등과 같은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에 대해 ‘사상단련의 용광로’, ‘혁명교양의 학교’로 정의한다. 북한의 당원과 근로단체 구성원들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해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糧食)’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료들의 ‘방조(傍助)’하에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²⁾

북한의 14~30세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청년동맹원 수는 약 500만 명이며 여기에 소년단원 3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800만 집단이 된다. 청년동맹의 성격은 ①노동당이 영도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청년조직이며 청년들의 사회주의적 대중단체, ②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

1) “청년들은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로동신문』, 2011년 8월 28일.

2)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p. 58.

의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³⁾

북한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집단주의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유기체적 국가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체제를 전체주의 혹은 극단적 집단주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특유한 ‘집단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집단생활 속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삶이 영위된다. 어느 사회이든지 ‘하나의 사회’속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고 있듯이 북한 역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도 ‘다양한 개인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은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었으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는 북한사회에 시장이라는 새로운 공간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탄생시켰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대폰 보급도 25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태블릿 PC도 등장했다. 이런 변화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롭게 단장한 북한을 낳을지는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북한주민들의 삶과 의식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북한변화와 남북통일에 준비 있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 북한 청년동맹의 성격과 발전 과정

1.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

사회주의국가에 존재하는 사회조직들은 크게 일반 사회단체와 집권당과 광범한 대중을 이어주는 연결 역할을 하는 대중단체로 나누어진다. 일반 사회단체로는 각종 친선단체와 전문가협회(기자동맹, 문학동맹 등) 등이 있고 대중단체로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의 동맹이다. 북한은 대중단체를 근로단체라 부른다.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 연결시키는 인전대(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라는 뜻)로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후비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근로단체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근로단체는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사상교양단체이다. 당이 근로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변에 묶어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이다. 근로단체는 동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당과 수령의 주변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혁명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 정치적 조직이다.

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여 동맹원 수가 500만 명이 된다. 여기에 소년단원 3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북한 근로단체 중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은 약 160만 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약 130만 명,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은 약 120만 명, 8 이들 세 개 단체의 맹원수를 다 합쳐도 청년동맹의 맹원수보다 적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노동당

3) 박정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규약해설』(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4), p. 5.

원도 약 322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동맹이 규모면에서는 북한의 최대 정치조직임을 알 수 있다.

청년동맹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청년동맹을 김정은동지의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되게 하며 청년들이 조선혁명의 연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기적과 혁신의 전통, 혁명적 낙관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 나가도록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다.⁴⁾

둘째,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이다.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근로단체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옹위하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복숭아씨를 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살을 근로단체”로 비유하였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 있게여무는 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 해야 대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으며 당을 힘 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⁵⁾

셋째, 근로단체는 당의 방조자(傍助者)이며 후비대이다. 이는 근로단체들이 당의 위업,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당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단체들은 동맹조직들을 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조직들로, 방패의대오로 만들고 당을 견결히 보위한다.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는 청년동맹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돌격대, 결사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당의 정치적 후비대라는 것은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주는 저수지, 당과 국가 간부의 후비를 길러내는 원천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동맹은 여타의 근로단체들보다 강도 높은 규율과 당성을 청년동맹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근로단체의 기본임무는 동맹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튼튼히 세우며 동맹원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근로단체 활동의 최고 원칙은 당과 수령께 충실하며 당의 사상과 영도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지도 아래 모든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년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

청년동맹이 결성된 것은 1946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청년동맹(이하 공청)을 해체하고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하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초기 민청은 청년들의 통일전선조직으로서 활용되었다. 김일성은 소수정예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청년조직이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한 조직을 내세움으로써 많은 청년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대해 나간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주변에 결속시키기 위해 1949년 4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을 해체시키고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을 건립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후 1951년 1월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되었다.

민청은 1964년 5월 1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하 사로청)으로 개칭 되었다. 사로청의 기본임무는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 사업과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를 위한 경제건설의 돌격대 역

4) “선군령장의 발걸음따라 청년들 앞으로.” 『로동신문』, 2012년 1월 17일.

5)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5.

할로 변하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북한은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들에 사상교육 강조와 함께 청년들을 독려하고 앞세우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절’(8월 28일)을 제정하였고, 1995년부터는 한 해의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의 주체로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보)와 함께 청년보(청년전위)의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당, 군, 청이 북한사회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6년 1월 16일에 개최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의에서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김정일은 “청년동맹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그 존엄과 영예를 빛내 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⁶⁾

2012년 4월 11일 진행된 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 것과 “김정은동지의 령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2012년 7월 12일에 개최된 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는 청년동맹 과업과 규약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각급 청년동맹 위원회의 1비서, 부비서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직책 명칭을 변경하였다.⁷⁾ 이는 김정은의 직책을 조선노동당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바꾼 후 최고지도자의 직책 명칭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급 기관인 청년동맹 최고 책임자의 직책을 수정한 것이다.

Ⅲ.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활동과 특징

1. 사상교양 사업의 지속적 강화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는 김정은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제난, 주민불만, 외부 정보유입 등 체제변화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시민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고 청년조직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청년동맹조직들처럼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삼고 수령옹위의 기치높이 광명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충직한 청년조직은 없다”면서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⁸⁾ 그러나 2011년 중동의 ‘재스민 혁명’에서 청년들이 체제변화의 주력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 시대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재스민 혁명’에 대해 미국의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미국은 ‘색깔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청년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츠 정권을 전복할 때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여기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서 재미를 본 미국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색깔혁명’을 위해 대학생들을 정치반란에로 내몰았다”고 비난하고 있다.⁹⁾

6)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사에 새겨진 위대한 업적 영원하리,” 『로동신문』, 2012년 3월 16일.

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12일.

8)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로동신문』, 2012년 8월 30일.

북한은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견결한 반세계급의식,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원수들의 그 어떤 비열한 책동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¹⁰⁾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오늘날 적들이 침략책동에서 쓰고 있는 기본수법이며 여기에서 주되는 대상은 청년들”¹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¹²⁾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은 이전 시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으며 내용에서는 국가 번영을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김정일애국주의’와 함께 북한 역사에서 ‘번영’과 ‘계승’의 시대였던 1970년대를 회상하고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정치행사를 통한 사상교양 성과를 경제적 동원으로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경제건설의 주역 지속

청년동맹은 경제건설에서도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¹³⁾

현재 북한 청년동맹에 부여된 국가차원의 핵심 경제 사업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공사’이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시대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인 ‘청년영웅도로’를 청년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완공했다고 하면서, “오늘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대고조의 전선들을 떠맡아 안고 영웅적 위훈들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

2013년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진행하였으며 김정은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인 ‘마식령속도’를 창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마식령속도’는 김일성-김정일 시대 국가건설 구호였던 천리마속도, 비날론속도, 80년대속도, 희천속도 등을 계승한 것이다.¹⁵⁾

IV. 김정은 시대의 청년동맹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제1비서는 2014년 9월 18일 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라는 제목의 서한 보냈다.

서한은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 것처럼 오늘의 역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활

9) “자주시대의 전진운동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24일.

10)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자.” 『로동신문』, 2012년 8월 28일.

11) “청년들에 대한 사상문화침투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7일.

12) ‘김정일애국주의’ 표현 2012년 5월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최초 등장. 7월 26일 김정은은 노동당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애국주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 본질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부강번영,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 희생적 헌신이라 밝힘.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국은 곧 수령,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

13) “우리 청년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낳은 자랑스러운 창조물.” 『로동신문』, 2012년 10월 17일.

14) “선군청년전위의 용맹을 떨치도록 고무추동.” 『로동신문』, 2012년 12월 11일.

15) “눈보라를 뚫고 산악같이 떨쳐나.” 『로동신문』, 2012년 2월 25일.

를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노동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규정하고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의 청년동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에 청년들이 앞장서 선군혁명위업을 받들데 대해 강조했던 것과 차이가 없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김 제1비서는 청년동맹에 보낸 서한에서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데 결사대가 돼야 한다”면서 “청년들은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명령을 단숨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는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때를 따라배워 당의 방침들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끝으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서한을 통해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청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체제를 안정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북한 청년세대의 삶과 의식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개인의 삶보다 집단의 삶이 우선시되는 북한의 특성상 청년동맹을 모르고서는 북한 청년세대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청년들은 유일 청년조직인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노동당에 끝없이 충성하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로 교육 육성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김정은 시대에서도 청년동맹을 지도했던 최용해, 문경덕 같은 인물들이 노동당의 핵심 지도부로 부상했다. 이것은 북한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발생한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사고는 청년들이 확고한 혁명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1970년대 시대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등에 강제동원 시키고 있다. 마식령스키장 건설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발휘된 청년들의 ‘위훈’을 ‘마식령속도’로 미화하면서 온 나라가 ‘마식령속도’ 창조운동에 나서도록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치적 호칭 하나만으로도 북한 청년세대의 삶과 의식세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